



# 「남해문견록」의 국어사적 고찰

장 영 길

동국대학교 인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교수

1. 서 론
2. 음운 현상
3. 방 언
4. 어 휘
5. 결 론



# 「남해문견록」의 국어사적 고찰

장 영 길

동국대학교 인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교수

## 1. 서론

국어의 역사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훈민정음의 출현은 우리말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기술해 낼 수 있는 문자의 출현이라는 의미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나 훈민정음이 세상에 반포되었을 때, 당시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은 매우 냉정한 반응을 보였다. 심지어 세종이 심혈을 기울여 길러낸 집현전의 학자들마저도 아예 ‘훈민정음반대상소문’을 올려 훈민정음을 배척하기에 이르렀다. 이 상소문에 수결한 사람은 당시 집현전 최고의 학자인 부제학 최만리를 비롯한 직제학 신석조, 직전 김문, 응교 정창손, 부교리 하위지, 부수찬 송처검, 저작랑 조근 등 7명이었다.

이러한 훈민정음 배척은 당시의 시대적인 사조가 종합되어 나타난 것

이겠지만, 이것은 훗날 많은 지식인들이 훈민정음을 익혀 그것으로 우리의 사상과 감정을 표기하는 것을 기피한 결과로 나타났다. 20세기에 ‘한글’로 다시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수백 년 동안 훈민정음은 음지에서 여성들의 글로 겨우 명맥을 유지해 왔다.

그런 가운데서도 서포 김만중처럼 훈민정음으로 우리 문학을 기술한 작품들만이 진정한 한국문학임을 설파한 사람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도 우리의 문자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채, 훈민정음이 창제된 후 조선 500년 동안에 남겨진 한글문학의 작품은 참으로 영성하기 짝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상들이 남겨준 훈민정음 기록 문헌을 꾸준히 발굴하여 국어사의 자료로서 면밀히 연구하고 검토해야 한다. 자료가 부족한 만큼 그것이 아무리 소략하고 미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중히 심려 있게 살피고 보존해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감안해서 볼 때 「남해문견록」은 문학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기록이지만 국어사의 한 자료로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고 할 것이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하고자 한다.

먼저 본 논문에 인용된 자료는 최강현(1999)에 영인되어 있는 원문에서 추출한 것이다. 이 영인본에 대한 서지적인 고찰은 앞서 말한 최강현(1999)을 참조할 수 있다. 단 이 영인본의 서두에 ‘남해도문견록’이라는 제목이 나와 있으므로 영인본의 책 제목도 이러해야 할 것이나 기왕의 논문에 「남해문견록」으로 기술되어 있으므로 이 글에서도 선례를 따르기로 한다.

이 책(남해문견록)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필사본으로 책의 크기는 ‘가로 19.9cm x 세로 30.9cm’ 인데 광곽이나 계선 그

리고 판심 등이 없는 한백지(韓白紙)에 묵서한 순 국문 필사본이다. 영인본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65면까지 내용이 기술되어 있으며, 본 논문에서 지적한 면수는 이 책의 그것을 따른 것이다.

이 책의 필자는 밝혀져 있지 않았으나, 최강현(1999)의 연구에 의하면, 18세기를 살다가 간 류의양(柳義養)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류의양은 1718년에 태어나 1788년에 졸한, 조선조 영조와 정조 시대에 활동한 정치인이요 문인이다. 그러므로 국어사적으로 볼 때, 그의 작품은 역시 근대국어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개 17세기를 기점으로 하여 중세국어와 근대국어를 구분하기도 하거니와, 임진왜란을 겪고 난 후 우리 국어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으므로 1600년대가 우리 국어의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이 된다고 한다. 그런데 언어의 역사를 얘기할 때 언어내사와 언어외사를 구분하여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sup>1</sup> 흔히들 말하기를, 언어의 역사를 시대 구분할 때 언어내사(言語內史)를 중요시해야지, 언어외사(言語外史)를 중심으로 언어역사의 시대 구분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임진왜란은 우리 국어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남해문견록」의 필자인 류의양은 18세기를 살다가 인물이므로 그의 글 속에는 근대국어의 특징들이 드러나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결과는 역으로 이 글의 필자가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밝힐 수 있는 동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1. 이기문(2000)의 17-18면을 참조하기 바람.

이제 본문에 들어가 「남해문견록」이 국어사적으로 어떤 의의를 지니고 있는지를 밝혀 보고자 한다.

## 2. 음운 현상

### 1) 모음조화

한국어가 계통적으로 어느 갈래에 들어가는가 하는 문제는 아직도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램스테트가 ‘한국어는 알타이어의 한 분기어’임을 제기한<sup>2</sup> 이후 많은 국내외 학자들이 이 문제에 천착하여 논의를 계속해 왔다. 이 문제는 아직도 가설의 상태로 남아 있긴 하지만 이른바 알타어의 공통 특질에 모음조화(vowel harmony)라는 것이 있다.

국어 모음체계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중세국어의 경우 대개 사선적 모음체계로 볼 수 있다.<sup>3</sup> 이 모음체계는 고대국어의 구개적 대립체계가 근대국어의 고저 대립체계로 변천해 가는 중간 단계의 체계라 할 수 있다.

구개적 대립체계인 고대국어에서는 ‘ㄴ ; ㄺ’, ‘ㅡ ; ㅜ’, ‘ㅓ ; ㅓ’가 전후설 대립으로 모음조화를 잘 형성했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ㄴ, ㅡ, ㅓ’는 전설모음으로 음성모음이 되고 ‘ㄺ, ㅜ, ㅓ’는 후설모음으로 양성모음이 되어 모음조화가 비교적 잘 이루어졌다는 뜻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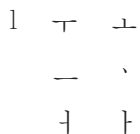
---

2. 다음 논문을 참조할 수 있음. Ramstedt, G. J.(1928), (1939), (1949).

3. 장영길(1994)의 33-48면을 참조하기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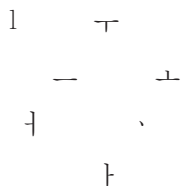
다. 이를 모음체계도로 보이면 다음 [1]과 같이 재구될 수 있다.<sup>4</sup>

[1] 고대국어 모음체계도



이 고대국어의 모음체계가 근대국어의 모음체계인 고저대립으로 변천되는 중간 단계인 사선적 대립체계는 대개 다음 [2]와 같이 재구해 볼 수 있다.<sup>5</sup>

[2] 중세국어 모음체계도



그리고 이 중세국어 모음체계는 근대국어 모음체계에서 완전히 고저대립 체계로 바뀐다. 근대국어 모음의 고저대립 체계를 체계도로 보이면 다음 [3]과 같다.

---

4. Juha Janhunen(1982)를 참조하기 바람.

5. 장영길(1994)를 참조하기 바람. [고대국어모음체계]에서 [근대국어모음체계]로 넘어오기 위한 중간단계의 모음체계로 설정한 것임.

### [3] 근대국어 모음체계도

l — ㅌ  
          ㅍ ㅊ  
          ㅍ (·)

이 모음체계의 변천과정에서 살펴보면 고대국어에서는 전설모음 ‘ㄱ, ㆁ, ㆑’와 후설모음 ‘ㄴ, ㄷ, ㅌ’가 서로 음성모음과 양성모음으로 대립의 짝을 이루어 모음조화를 형성했다는 뜻이며, 중세국어에서는 [+성심(聲深)] 자질을 갖는 ‘ㄴ, ㄷ, ㅌ’가 양성모음으로 그리고 [-성심(聲深), -성천(聲淺)]의 자질을 갖는 ‘ㄱ, ㆁ, ㆑’가 음성모음으로 대립의 짝을 이루어 모음조화를 형성했으며, [+성천(聲淺)]의 자질을 갖는 ‘ㅣ’는 중성모음으로 모음조화에서 중립적 자질을 가진다.

그런데 근대국어의 고저대립체계가 생성되면서 ‘·’가 소멸되었고 이 모음과 짝이 되는 ‘ㆁ’가 모음조화 상 대립의 짝을 잃어버렸다. 이와 같은 모음추이의 와중에서 결국 근대국어의 모음조화가 완전히 붕괴되면서 현대국어로 넘어오게 되었는데, 현대국어의 모음조화는 겨우 흔적만 남겨 둔 채 역사적 사실로 사라져 버렸다.

「남해문견록」의 표기를 살펴보면, 문자의 보수성에 따라 전통적으로 모음조화가 지켜질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미 여러 곳에서 모음조화의 붕괴가 보인다. 예문[4]의 몇 가지 예를 살펴보기로 한다. 예문[4]의 오른편 표기는 모음조화가 지켜진 표기인데 이 책에서는 모두 왼편의



모음조화가 붕괴된 형태로 표기되어 있다.<sup>6</sup>

[4]

- |                   |          |
|-------------------|----------|
| (1) 나라흘(7)        | < 나라흘    |
| (2) 밀을(9)         | < 밀을     |
| (3) 내슈찬을(11)      | < 내슈찬을   |
| (4) 흔쌍을(15)       | < 흔쌍을    |
| (5) 도흔(18)        | < 도흔     |
| (6) 보디못헝믈(18)     | < 보디못헝믈  |
| (7) 헝나흔(19)       | < 헝나흔    |
| (8) 남그로(19)       | < 남그로    |
| (9) 작은(20)        | < 작은     |
| (10) 노량묵으로(23,24) | < 노량묵으로  |
| (11) 동학을(25)      | < 동학을    |
| (12) 도둥물산은(27)    | < 도둥물산은  |
| (13) 던답을(38)      | < 던답을    |
| (14) 일흠으로(39)     | < 일흠으로   |
| (15) 도흔고지로티(42)   | < 도흔고지로티 |
| (16) 저른볼모(44)     | < 저른볼모   |
| (17) 쌀을(45)       | < 쌀을     |
| (18) 무른죽(49)      | < 무른죽    |

---

6. 예문[4]의 ( )속 숫자는 「남해문견록」에 그 예문이 나타난 지면임. 이하 예문에서도 동일함.

- |                |         |
|----------------|---------|
| (19) 거슬(50)    | < 거슬    |
| (20) 도둥풍속을(51) | < 도둥풍속을 |
| (21) 헛나흘(52)   | < 헛나흘   |
| (22) 무르니(53)   | < 무르니   |
| (23) 히거를(53)   | < 히거를   |
| (24) 덩쳐를(54)   | < 덩쳐를   |
| (25) 만흔새(59)   | < 만흔새   |
| (26) 죠흔말이라(60) | < 죠흔말이라 |
| (27) 벼슬을(61)   | < 벼슬을   |
| (28) 도홀듯하다(64) | < 도홀듯하다 |
| (29) 업슨디라(64)  | < 업슨디라  |
| (30) 만흔(65)    | < 만흔    |
| (31) 거슨(65)    | < 거슨    |

예문[4]의 예 중에 대개 음성모음계열을 양성모음계열로 바꾸어 쓴 예는 (16)과 (18), (19), (22), (23), (24), (29), (31) 등이며, 양성모음계열을 음성모음계열로 바꾸어 쓴 예에 비해 그 수가 매우 적다. 이 같은 사실을 감안해서 볼 때, 모음조화의 대립은 치츄 음성모음계열 하나로 통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음운현상은 근대국어의 특징 중의 하나다.

## 2) 구개음화

국어사에서 구개음화는 그 동안 많은 학자들에 의해 논의되었다. 그

간의 논의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비교언어학적인 견지에서 고대국어 모음체계에 /ɨ/ 모음이 들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를테면, [+back, -high] 자질을 가지는 양성모음 /i/와 [-back, +high] 자질을 가지는 음성모음 /i/가 있었는데, 고대국어에서 /i/와 결합된 /t/계열이 구개음화를 일으키고 /i/와 결합된 /t/계열은 구개음화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이다.<sup>7</sup> 후대 어느 시기에 /i/와 /i/가 중화되어 중성모음 /I/가 되어 중세국어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므로 중세국어에서 /ɨ/ 모음은 중성모음으로 모음조화의 짝이 없다.

그런데 실제로 중세국어 /ɨ/모음과 연계되는 조사나 연결어미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중세국어의 /ɨ/모음은 양성모음의 자질을 갖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러므로 양성모음자질을 갖은 중세국어 /ɨ/모음과 결합된 /ㄷ, ㅌ, ㅍ/ 등이 구개음화를 일으킬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근대국어로 넘어오면서 국어의 /ɨ/모음은 [-back, +high] 자질을 갖는 음성모음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에 따라 국어사에서 두 번째로 구개음화를 일으키게 되었다.<sup>8</sup>

대개 국어사에서 구개음화는 그 시기와 장소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고대국어에 있었던 구개음화를 구개음화 제1기라고 한다면, 구개음화 제2기가 대개 17세기에서 18세기 전후에 일어났던 구개음화라고 할 수 있다. 현대국어에서 구개음화의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데도 구개음화를 일으키지 않는 이유는 그 시기와 장소를 맞추지 못했기 때

---

7. 김원진(1965, 1968)을 참조하기 바람.

8. 장영길(1994), 특히 48면 - 50면을 참조하기 바람.

문이다. 예를 들면 현대국어에서 다음 예문[5]의 어휘 예들이 구개음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이유는 이 말들이 17-8세기 전후의 국어에서 그 형태가 지금과는 달랐기 때문이다. 즉 구개음화 제2기였던 18세기전후를 기점으로 볼 때 다음 예문[5]의 어휘들의 언어형태가 지금과는 다른 형태였기 때문이다. 즉 예문[5]의 왼쪽 형태가 오른쪽 형태로 변천해온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기술될 수 있다.

[5]

- (1) 마디 < 마되 < 마되
- (2) 드티다 < 드티다
- (3) 디디다 < 드되다 < 드되다 : cf. 드되논지라(3)
- (4) 띠 < 띠
- (5) 드디어 < 드되여 < 드되여
- (6) 어디 < 어되
- (7) 견디다 < 견되다
- (8) 버티다 < 버되다
- (9) 띠다 < 띠다
- (10) 티끌 < 뜻글 : cf. 뜻글(2)

「남해문건록」을 살펴보면, 구개음화된 예가 많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문헌이 만들어진 시기를 감안하면 구개음화가 상당한 부분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예상만큼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아직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예를 들면 다음 [6]과 같다. [6]의 예문 중에는 가끔 과잉수정으로 표기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6]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형태

오던의(1), 통성(2), 득님이(3), 잇는디라(3), 니통무공(3), 통데사(3), 덕희어(3), 무덜너(3), 던후(3), 흐는디라(3), 도가의셔(3), 스텝을(4), 널성도의(4), 극진흐오신디라(4), 엇디(4), 문명공이(4), 스텝을(4), 통절을(5), 가는디라(5), 다르디(6), 오르디(6), 황테(7), 승던흔(7), 사덕을(7), 흐거신디라(7), 고덕이(7), 디으니(7), 엄텡(8), 고덕을(8), 보논디라(8), 승던비(8), 통데선이(8), 통데스의던션(8), 무디독(8), 통효(8), 유손던(8), 심유당(8), 통효말은(8), 통무공(8), 닥은(9), 잇는디라(9), 디나(9), 덩혀(10), 맛디는(10), 도히(10), 덩참판(10), 광통이(10), 디내자(11), 스텝상소도(11), 방퉁지명이(11), 덩혀(11), 머디(11), 덕직들도(12), 덕소의셔(12), 둥디(15), 둥의(15), 큰디라(15), 데명한(16), 덕희워(16), 혼덕이(17), 아디못하니(18), 도흔(18), 보디못할(18), 그르디아니러라(18), 도야디(19), 데두석(20), 드디(20), 므르디(20), 당마의도(20), 도둥(22), 요통지지(25), 도하(25), 데톡혀(26), 맛더(26), 덕희면(27), 도하(27), 덕으니(27), 도둥물산은(27), 던복(27), 당날이면(27), 구둥궁궐의(31), 덜고를(31), 갓가온디라(31), 막둥흔(32), 도둥풍속은(32), 당만혀야(32), 당구를(33), 디내니(33), 디내여도(34), 잘못디내다(34), 급데흔(34), 선던이(34), 던안흔(34), 도둥의(35), 둥간의(36), 도둥늘거니들이(36), 도둥풍속이(36), 사논디라(37), 디낸후(37), 산둥의(37), 도석으로(37), 듀야젓희셔(38), 던답을(38), 형데(38), 극던혀거(니)와(39), 던토를(39), 가 이니(39), 종형데(39), 던토로(39), 던토이션들(39), 도쇼혀고(39), 덩절(40), 덕희리(40), 덕은디(40), 덩녀지전을(41), 관당되였는니(41), 통성혀고(41), 던답이(42), 덜삼들이(42), 서리는디라(42), 무수흔디라(45), 디

나가면(46), 등광대어나(46), 요디경이나(46), 부쳐두디(46), 꺾흔디  
 라(47), 디내거니와(47), 덕꺾이서(47), 잇는디라(48), 도봉스집이라  
 (49), 방덕을(49), 잘흔디라(49), 방덕을(49), 방덕스승으로(49), 도  
 봉스란거시(49), 도봉스라흔(50), 도둥의(50), 나오디(50), 등형혀  
 여(50), 도종스란것도(50), 도가를(51), 등형혀(51), 도둥풍속을(51),  
 덩치(51), 지당흔신디라(51), 도봉스집이(51), 도둥사름들이(52), 남  
 히도둥의(52), 덩쳐로(53), 디내노라(53), 엇디(53), 내디아니흔다흔니  
 (54), 덩쳐를(54), 보아디라(55), 밧디못헝고(56), 가둥은(57), 엇디못  
 햏야(57), 도척이(57), 어려운디라(57), 어렵디아니헝가(57), 아디못햏  
 여라(58), 딘짓(58), 당의보리를(58), 디내고(58), 급데햏여시되(58),  
 디으니(58), 도복푸라(59), 웃디(59), 말을디어다(59), 당만햏면(59),  
 도커니와(59), 도타(59), 디내니라(60), 극딘햏여도(60), 문당이(60),  
 도덩의(61), 도타(61), 호덕을(63), 팔도둥(63), 머디(63), 도흘듯햏다  
 (64), 업슨디라(64), 알디라(64), 봉너궁던의(64), 당안(64), 당슈흙꺾  
 햏니라(65), 무궁무딘이(65),

이에 비해 구개음화가 일어난 예를 살펴보면 매우 드물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보면 다음 [7]과 같다.

[7] 구개음화가 일어난 형태

- (1) 죽넘소괴(3) : cf. 독넘이(3)
- (2) 드러났는지라(5) : cf. 햏는디라(3)
- (3) 뵈이지(5)
- (4) 친병(8)

- (5) 엇지(11)
- (6) 작은(20) : cf. 닥은(9)
- (7) 더흐지아니흐야(20)
- (8) 절구경을(25)
- (9) 싸져잇다가(29)
- (10) 질고를(30) : cf. 덜고를(31)
- (11) 좡형계(39) : cf. 좡형데(39)
- (12) 저른볼모(44)
- (13) 드지못흐니(46)
- (14) 도라가지아니흐고(48)
- (15) 잘홀듯흐지라(49)
- (16) 고이치아니흐거니와(53)
- (17) 뼈부쳐거늘(54)
- (18) 마지못흐야(56)
- (19) 죠흔말이라(60) : cf. 도커니와(59)

이상의 예를 살펴보면, 구개음화가 실행된 경우보다 실행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다. 그러나 국어사의 입장에서 볼 때 상기 [7]의 예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를테면 「남해문건록」의 필자가 18세기 당대의 사대부로서 지식인의 부류에 들어간다고 할 때, 그들의 언어생활이나 문자생활은 매우 고전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해, 이들 사대부들의 언어생활이나 문자생활의 보수성을 감안할 때, 그런 상황에서도 [7]의 예문들이 표기상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구개음화의 실제적인 진전이 상당히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한 지

면에서 두 가지의 표기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7]-(1)의 ‘죽님소귀(3) : cf. 독님이(3)’ 나, [7]-(11)의 ‘중형계(39) : cf. 중형데(39)’ 나, 앞뒤 면에 차례로 나오는 [7]-(10)의 ‘질고롤(30) : cf. 덜고롤(31)’ 그리고 [7]-(19)의 ‘조흔말이라(60) : cf. 도커니와(59)’ 등의 예를 보면 구개음화에 대한 저간의 사정, 즉 구개음화가 상당히 진전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 3) 원순모음화

근대국어 특징 중의 하나로 흔히 원순모음화를 든다. 중세국어의 모음체계에서 근대국어의 모음체계로 체계가 바뀌면, 순음계열의 자음인 /口, ㅂ, ㅍ, ㅃ/와 [+back, +high, -round]의 자질을 갖는 모음인 /ㅡ/가 결합하여 ‘/ㅡ/⟩/ㅓ/’ 화가 이루어진다. 이것은 순음계열의 자음이 갖는 원순성이 장순모음인 /ㅡ/를 원순모음인 /ㅓ/로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sup>9</sup> 그래서 대개 ‘믈>물(水), 불>불(火), 풀>풀(草), 썰>빨(角)’ 등의 변천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유의 변천된 표기가 이 「남해 문견록」에 가끔 나타난다. 다음 예문 [8]-(1)은 원순모음화를 일으킨 것이고, [8]-(2)는 원순모음화를 일으키지 않은 것이다.

특히 [8]-(3)의 ‘몬져’는 후대에 ‘몬져>먼져>먼저’로 어형이 바뀌어 이른바 비원순모음화의 예가 된다. 이러한 어휘로는 ‘보션>버션>버선’ 등이 있는데, 이 문헌에서는 이러한 변화양상이 아직 이루어지지

9. 이기문(2000:86-87)을 참조하기 바람.



않았다.

[8]

(1) 물우희(22), 물의(26), 물드리기(28), 물소기(29), 물소기(29),  
물우희(29), 너문들(35),

(2) 물(1), 물결(1), 물ㄱ(3), 물의즈(3), 불상호여(3), 불너(10), 북문  
(10,11), 브리더니라(12), 브린일이(12), 브리디(13), ㄱ문째의  
(18), 물인지(18), 우물(20), 비물이(20), 물이(20), 물로(20), 물  
을(22), 물길이(23), 물드리지(27), 물은즉(28), 불상호(28), 불  
상호(30), 습넙브터(37), 물ㄱ의도(41), 프르러(42), 히물이(42),  
호물며(51), 물ㄱ이(56),

(3) 몬쳐(64),

#### 4) 전설모음화

중세국어 모음체계가 근대국어 모음체계로 변천하면서 일어난 음운  
현상 중에 또 전설모음화가 있다. 이 현상은 경구개음 /ㅈ, ㅊ, ㅍ/ 등  
이 [+back, +high, -round]의 자질을 가지는 모음 /ㅡ/와 결합될 경  
우, 경구개음의 조음위치에 따라 /ㅡ/를 [-back, +high, -round]의  
자질을 갖는 모음 /ㅣ/로 이끌어가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곧 조음위치  
이동을 의미한다.

[9]

- (1) 즈시(23) > 짓이
- (2) 즈레(23) > 지레
- (3) 즈승의계도(32) > 짐승에게도
- (4) 거츰(9) > 거친.

[9]의 어휘들은 장차 전설모음화를 겪어야할 것들인데, 이 자료에서는 아직 전설모음화를 일으키지 않은 형태들이 나타난다. 대개 전설모음화는 근대국어 말기에서 현대국어로 넘어오는 무렵에 일어나는 음운 현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 3. 방언

「남해문견록」에 수록된 이른바 남해방언은 크게 보면 경상방언에 해당한다. 주지하다시피 경상방언의 국어사적인 연구 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자료의 화자(필자)가 경상방언의 구현자이거나 혹은 경상방언의 지역 내에서 출판된 책이라면 신뢰도가 높을 것이다.

그런데 이 문헌은 서울 출신인 화자가 남해에 유배 와서 보고 들은 바를 기록한 것이다. 그러므로 전체 문헌 가운데에서 경상방언을 채집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다만 이 책의 필자가 남해의 방언이라고 언급하면서 기록한 부분만이 방언사적인 자료로서 가치가 충분히 있다. 여기서는 최강현(1999)에 수록된 필사본의 방언 부분을 중심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다음 예문[10]의 어휘들은 이 책의 43-45면에 수록된 남해의 방언이다. 이들 방언 중 몇 개의 어휘들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방

언 분포를 잠시 살펴보기로 한다.<sup>10</sup> 예문[10]의 오른편 기술은 현대국어 표준어에 해당하는 어휘이다.

[10]

- (1) 경지 : 부엌
- (2) 녹궁 : 마냥
- (3) 비질 : 빗질
- (4) 늑의 : 너희
- (5) 즉의 : 저희
- (6) 가산아희 : 계집애, 여자아이
- (7) 올체 : 올케
- (8) 묵으라 : 먹어라
- (9) 함부래 : 함부로
- (10) 당스 : 아직
- (11) 도라 : 달라
- (12) 핑핑거르라 : 바삐 걸어라
- (13) 쏘ㅇ : 빵
- (14) 빅피장 : 길경, 도라지
- (15) 글억이 : 기러기
- (16) 비가리 : 병아리
- (17) 볼모 : 옷

---

10. 김병제(1980)와 김형규(1974)를 참조하기 바람.

- (18) 핫물모 : 핫옷
- (19) 훗볼모 : 훗옷
- (20) 겹볼모 : 겹옷
- (21) 긴볼모 : 긴 옷
- (22) 저른볼모 : 짧은 옷
- (23) 화퇴 : 화로
- (24) 청 : 키
- (25) 강남슈슈 : 옥수수
- (26) 작지 : 지팡이
- (27) 거싱 : 지렁이
- (28) 솔방 : 솔개
- (29) 다립 : 다리미

[10]-(1)의 ‘경지’는 현대국어 표준어로 ‘부엌’을 뜻하며, 현대국어 경상방언으로 ‘정지’가 있다. 현대국어 방언에서 ‘정지’를 쓰고 있는 지역은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등이다.

[10]-(6)의 ‘가산아희’는 현대국어 표준어로 ‘여자아이, 계집애’를 뜻하며, 현대국어 경상방언으로 ‘가시내’ 혹은 ‘가시나’ 등이 있다. 현대국어 방언에서 ‘가시나’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은 충남, 경남, 경북, 전남, 전북 등이며, ‘가시내’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은 경남, 경북, 전남, 전북 등이다.

[10]-(11)의 ‘도라’는 ‘달다’의 명령형으로 경상방언과 제주방언에서 쓰인다. 특히 주어가 이인칭(너, 너희)인 경우에 나에게 무엇을 달라고 할 때 사용한다. 예를 들어 ‘(너는 나에게) 밥을 줘 도라’ 등에서 명

령문이므로 주어와 부사어가 생략되어 사용된다. ‘도, 도라’ 등의 활용형으로만 주로 쓰이는 이른바 불비동사에 해당한다.

[10]-(14)의 ‘비피장’은 현대국어 표준어 ‘길경’ 혹은 ‘도라지’의 방언인데, 현대국어 경상방언으로 ‘돌개(경남), 도래(경북)’라 한다. 그 밖에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등지에서는 ‘도라지’로 일반화되어 있고, 경북에서도 영주, 청송, 영덕, 상주, 의성, 선산, 금릉 등과 경남 거창, 진양, 동래 그리고 제주도 등지에서도 ‘도라지’가 나타난다. 그리고 ‘도랏’이라는 형태는 충북 금산과 전북 장수, 경북 고령 등지에서 나타난다. 한편 ‘돌가지’ 형태는 전북 군산, 옥구, 임실, 정읍, 순창과 전남 곡성, 구례, 장성, 담양, 나주, 순천, 광양, 강진, 경북 울진, 봉화, 영주, 영양, 포항, 경남 창원, 진주, 함안, 울산, 울주, 양산, 김해, 동래, 부산 등지에서도 나타난다. 그리고 ‘돌갯’ 형태는 전남 영암, 고흥, 보성, 장흥, 강진, 해남, 진도, 완도 등에서 나타난다.

[10]-(16)의 ‘비가리’는 현대국어 표준어 ‘병아리’의 방언인데, 현대국어 경상방언으로 ‘삐가리’ 혹은 ‘삐까이’<sup>11</sup>라 한다. 이 방언은 경남, 경북, 전남 등지에서 쓰이고 있다. 그런데 병아리의 방언 분포도 지역마다 매우 달라 다양한 형태를 나타낸다. 먼저 ‘병아리’ 계열은 전국적으로 쓰이는데, ‘뺑아리’는 경남 진양 등지에서 쓰인다. ‘뺑아리’는 강원도와 충북 옥천, 영동, 충남 보령, 경북 영천, 경남 함양, 함남 신고산, 안변, 덕원 등지에서 쓰인다. ‘뺑아리’는 전남 보성, 해남

---

11. 표기 중에 사선으로 된 음절은 모음이 비모음인 것을 표기한 것이다. 프랑스어에서 비모음의 발음기호로는 모음 위에 ‘h’ 등과 같이 물결 표시를 하여 나타낸다. 한국어에서는 특별히 표기할 기호가 없어 사선으로 나타내어 해당 음절의 비모음을 표시한 것이다. 경상방언의 비모음은 매우 특이한데, 예를 들면 ‘방매이(방망이), 호메이(호미), 물도오(물동이), 갈배이(거지)’ 등이다. 장영길(1998)을 참조하기 바람.

등지에서 사용된다. 대개 함경도 지역에서는 ‘배우리’가 쓰이고, ‘뽕살’, ‘뽕우리’ 등이 함께 사용된다. ‘뽕아리’는 강원도 고성, 정선, 충남 청양, 서천, 전북 군산, 옥구, 익산 그리고 경북 문경, 예천, 상주, 선산, 김천, 금릉, 칠곡 그리고 경남 울산 등지에서 쓰이고 있다. 한편 ‘뽕아리’는 전남, 전북지역 그리고 경북 안동지역과 고령, 경남 하동, 충무 등지에서 사용되고 있다. ‘뽕애리’는 평북 박천, 영변, 희천, 강계 등지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뽕아리’는 경북 울진, 영양, 영덕, 의성, 군위, 경남 동래 등지에서 사용되고 있다. 한편 ‘뽕가리’는 경남 거창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뽕가리’는 경남 합천에서 사용되고 있다. ‘뽕에갱이’는 경북 경주, 월성, 경남 거창, 함양, 함안 등지에서 쓰이고, ‘뽕갱이’는 경북 칠곡 금릉에서 쓰이고, ‘뽕갱이’는 전남 순천, 승주, 경남 동래, 부산, 거제, 남해에서 쓰인다. 한편 제주에서는 ‘뽕애기’ 혹은 ‘뽕야기’ 등이 사용되고 있다.

[10]-(22)의 ‘저르볼모’는 현대국어 표준어로 ‘짧은 옷’이란 뜻이다. ‘저르다’는 역사적으로 <더르다>저르다>짧다>와 <다르다>자르다>짧다> 두 형태로 변천되는데,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에 ‘더르다’, ‘저르다’, ‘다르다’, ‘자르다’ 등이 나타난다. 현대국어 경상방언에는 이런 어휘가 쓰이지 않고 ‘짧은 옷’으로 쓰인다.

[10]-(23)의 ‘화튀’는 현대국어 표준어 ‘화로’의 방언으로 전국적으로 그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우선 현대국어 경상방언의 일부 지역에 ‘활튀’가 쓰이고 있고, ‘화리’는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황해, 평남, 평북, 함남, 함북 등지에서 쓰이고 있다. 그리고 한반도 북부지역에서는 대개 ‘화룻동’, ‘화루똥’, ‘화리똥’, ‘활똥이’ 등이 동시에 쓰이고 있으며, ‘화래’는 황해도 지역에서 쓰이고 있다.

[10]-(24)의 ‘청’은 현대국어 표준어 ‘키’의 방언으로 현대국어 경상방언에서는 ‘치이, 채이’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전남, 충북 등지에도 이 형태가 나타난다. 그리고 ‘채’의 형태가 전남, 전북 등지에서 나타난다.

[10]-(25)의 ‘강남슈슈’는 현대국어 표준어 옥수수의 방언인데, 현대국어 방언에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경상방언에서는 지역에 따라 ‘강낭수꾸, 강낭수끼, 강낭수깨, 강낭시끼, 강낭새끼’ 등이 쓰이고, 제주방언에서는 ‘강낭대죽’으로 쓰인다. 황해지역에서는 ‘강낭이’가 쓰이며, 평남, 평북지역에서는 ‘강능띠, 강능사오리’ 등이 쓰인다. 대개 한반도 북부지역 특히 함남, 함북이나 황해지역에서는 ‘강내, 강내미, 강내이, 강내, 강녕이’ 등 다양한 형태가 나타난다.

[10]-(26)의 ‘작지’는 현대국어 표준어 ‘지팡이’의 방언인데 현대국어 경상방언으로 ‘지꺀이’ 혹은 ‘작대기’ 등이 쓰이고 있다. 한반도의 북부에서는 ‘지꺀이, 지꺀, 지꺀막대’ 등이 쓰이고 있다.

[10]-(27)의 ‘거싱’은 현대국어 표준어 ‘지렁이’의 방언인데, 현대국어 경상방언으로 ‘꺼시이’가 쓰이고 있다. 이 방언은 표준어의 ‘거위(기생충의 일종)’와 ‘지렁이’를 동시에 일컫는 말인데 동음이의어가 된다. 전남지역에서는 ‘꺼시렁이’라고도 하고, 충남, 전북 등지에서는 ‘꺼쟁이’ 그리고 경남 경북 등에서는 지역마다 ‘꺼짱이, 꺼깁이, 꺼깁이, 꺼짱이’ 등의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기도 한다.

[10]-(28)의 ‘솔방’은 현대국어 표준어 ‘솔개(사나운 새의 일종)’의 방언인데, 현대국어 경상방언에서는 ‘소래기, 소리기’ 등으로 나타나고, 충청도와 강원도 등지에서는 ‘소루개, 소리개미’ 등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제주방언에서는 ‘소래기’로 나타난다.

[10]-(29)의 ‘다립’은 현대국어 표준어 ‘다리미’의 방언인데, ‘다리미’의 18세기 당시 국어로는 ‘다리우리’라고 하였다. 현대국어 방언에서 다리미는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개 함경방언에서는 ‘다로리, 다롤, 다르미, 다리울, 다리우리, 다림, 대레니, 대렌, 다레이’ 등으로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전라방언에서는 ‘다루미, 다리비, 다래비, 대루, 대루미, 대리미, 대리비, 대래미’ 등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경상방언에서는 ‘다리비, 다래미, 다래비, 달비, 대리미, 대리비, 대래비’ 등으로 나타난다. 아마도 이 어휘는 방언지대로 나타내었을 때 매우 복잡한 분포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리미’는 표준어 ‘다리미’의 |모음역행동화가 일어난 형태로서 거의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 4. 어휘

##### 1) ㅎ곡용어

중세국어 어휘 중에 곡용하는 형태에서 ㅎ이 첨가되는 어휘가 있다. 이를 우리는 ‘ㅎ곡용어’라고 한다. 이 어휘가 근대국어에까지 잔존해 오다가 현대국어에서는 사라지고 일부 어휘의 합성어 형태에서 화석처럼 남아 있다. 예를 들면 ‘살코기, 암돼지’ 등이다. 이 책에서 ㅎ곡용어로 등장하는 어휘는 다음 예문[11]과 같다.

[11]

(1) 길ㅎ(2, 5, 18, 28)



- (2) 짜ㅎ(3, 8, 11, 23, 26, 35, 65)
- (3) 나라ㅎ(3, 5, 7, 30, 41, 52)
- (4) 터ㅎ(7)
- (5) 바다ㅎ(7, 17, 18, 21)
- (6) 흐나ㅎ(9, 17, 19, 29, 36, 38)
- (7) 세ㅎ(15)
- (8) 우ㅎ(15, 17, 19, 20, 22, 26, 29, 31)
- (9) 돌ㅎ(16)
- (10) 띄ㅎ(19, 21)
- (11) 쫄ㅎ(52)

그런데 이 ㅎ곡용어도 차츰 탈락의 형태로 발전해 간다. 예를 들면 ‘하늘(19)’의 경우는 ㅎ곡용어인데 이미 탈락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 2) ㄱ곡용어

중세국어 어휘 중에 곡용하는 과정에서 어휘의 끝 모음이 줄고 ㄱ이 첨가되는 어휘가 있는데 이를 우리는 ‘ㄱ곡용어’라고 한다. 예를 들면, ‘나무(木)’는 ‘남모+이>남기’가 되는데 이처럼 ‘남기, 남기, 남글, 남ㄱ로 ---’ 등으로 곡용된다. 중세국어의 ㄱ곡용어로는 ‘나무, 구무, 불무, 너느’ 등이다. 다음 예문[12]는 이 책에 등장하는 ㄱ곡용어이다.

[12]

(1) 굽기(17, 19)

(2) 남그로(19)

[12]-(1)의 ‘굽기’는 ‘구무(穴)+이’의 형태에서 ‘ㄱ곡용어 형태’로 바뀐 것이다. 그리고 [12]-(2)의 ‘남그로’는 ‘나모+으로’의 형태에서 ‘남ㄹ로’로 바뀌어야 하는데 조사 연결에서 모음조화 붕괴가 일어난 형태이다. 이로 보면 ㄱ곡용어는 근대국어에까지 유지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 3) 기타 어휘

국어사적으로 특이한 형태의 어휘들이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바 이를 간단히 정리하기로 한다. 중세국어에서 ‘ㄷ’의 음가가 어떠했던가 하는 문제는 ‘빙’의 음가 문제와 더불어 한동안 학계에서 논의되어 왔다. 그 동안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개 ‘ㅁ술 > ㅁ을 > ㅁ을 > 마을’ 등의 예에서처럼 ‘ㄷ > ∅’로 약화 탈락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일부 어휘에서는 ‘ㄷ > ㅅ’ 혹은 ‘ㄷ > ㅈ’의 예가 보이는데 이 변천은 기존의 논의 결과와는 다른 변천이 된다. 흔히 이를 ‘ㄷ’의 강화현상으로 보기도 한다.

[13]

(1) ㅁ음(2, 8)

(2) ㅁ음(49)

(3) 막양(4, 17, 18, 20, 22, 27, 31, 43, 52)

(4) 막을(45)

(5) 손조(37, 58)

[13]-(1),(2)는 ‘막슴>막음>막음>마음’으로 변천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형태인데, [13]-(2)의 ‘막음’이 더 고형이다. [13]-(3)은 ‘믹양(每樣)>미양>미양>마냥’으로 변천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형태이다. 이 책에서는 모두 ‘막양’으로 나타났다. [13]-(4)는 ‘막술>막을>막을>마을’로 변천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형태이다. 이상의 경우 대개 ‘ㄷ>∅’의 약화 탈락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13]-(5)의 경우에는 ‘손소>손조>손수’의 변천과정에서 나타나는 형태이다. 이 경우는 ‘ㄷ>ㅅ(ㅆ)’의 강화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현대국어 ‘짐승’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중싱(衆生)>짐싱>짐승>짐승’으로 나타난다. 이 책에서 이 어휘의 표기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 예문[14]와 같다.

[14]

(1) 짐싱(23)

(2) 짐승(21, 32)

[14]-(2)의 ‘짐승’은 아직 전설모음화를 겪지 않은 형태인데 현대국어에서 전설모음화가 일어나 ‘짐승’으로 바뀌었다. 의미론적으로 보면, ‘생명을 띤 모든 것’이라는 ‘중싱(衆生)’의 의미에서 현대국어의 ‘짐승’의 의미로 바뀌었다. 이는 의미축소의 한 예가 된다.

현대국어에서는 명사화 접미사와 부사화 접미사가 똑같이 ‘-이’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높다’의 경우 명사화 접미사 ‘-이’가 붙으면 ‘높이’가 되어 파생명사가 되는데, 부사화 접미사 ‘-이’를 붙여도 ‘높이’가 되어 파생부사가 된다. 그런데 중세국어에서는 명사화 접미사는 ‘-의’가 되고 부사화 접미사는 ‘-이’가 된다. 이 책에 명사화 접미사와 부사화 접미사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보면 다음 예문[15]와 같다.

[15]

- (1) 너비(1, 15, 26)
- (2) 킨(15)
- (3) 노피(16)

예문[15]-(1)의 ‘너비’는 중세국어 형용사 ‘넙-’에 명사화 파생접미사 ‘-의’가 붙어서 생성된 파생명사이다. 예문[15]-(2)의 ‘킨’은 동사 ‘크-’에 명사화 파생접미사 ‘-의’가 붙어서 생성된 파생명사이다. 그리고 예문[15]-(3)의 ‘노피’는 형용사 ‘높-’에 부사화 파생접미사 ‘-이’가 붙어서 생성된 파생부사이다. 물론 현대국어에서는 명사화 파생접미사와 부사화 파생접미사가 모두 ‘-이’로 나타난다.

[16]

- (1) 닥은(9)
- (2) 작은(20)
- (3) 덕으니(27)

한편 예문[16]을 보면, 중세국어 ‘덕다(小)’의 모음교체가 일어난 ‘닥다’가 이 문헌에 나타난다. 후대에 ‘닥다>작다>작다’로 형태변화를 일으킨다. 이 어휘는 「계림유사」에 ‘小曰胡根’이라 하였으므로 중세국어의 예로 풀어보면 형용사로서 ‘혹다(小)’라는 형태가 되는데 이 말은 중세국어에 자주 나타난다. 예를 들면, ‘簫는 효근 대를 엮거 부는 거시라(석보상절13:53)’, ‘骨髓엔 효근 별에(월인천강지곡 상 25)’ 등을 들 수 있다. 이 어휘는 현대국어에서 ‘작다’와 ‘적다’로 의미가 분화되어 표제어로서 사전에 등재되어 있다. 즉 ‘작다’는 크기를 가리키는 말이며 ‘적다’는 분량을 가리키는 말이다.

[17]

(1) 도로혀(9)

이 어휘는 중세국어에 ‘도로혀다’, ‘도르혀다’ ‘도르혀다’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어휘의 파생부사이다. 그래서 그 형태도 ‘도로혀’, ‘도르혀’ 혹은 ‘도르혀’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대개 의미는 ‘돌이키다’에서 파생부사가 된 어휘로 ‘도리어’의 의미가 된다. ‘혀다’의 ‘ᄃᄂ’은 후대에 ‘ㄱ’으로 바뀌기도 하고 ‘ㅅ’으로 바뀌기도 한다. 예를 들면 ‘브를 혀다>불을 켜다’, ‘혈믈>썰믈’ 등이 그것이다.

## 5. 결 론

이상의 논의를 요약 정리함으로써 결론으로 삼는다.

근대국어시기를 17세기 초부터 19세기 말까지로 정리한다면, 「남해

문견록』의 저자인 유의양 선생이 살다가 간 18세기는 국어사적인 입장에서 볼 때, 중세국어에서 근대국어로 완전히 넘어온 시기이다. 그러므로 이 책의 제반 언어 현상들이 근대국어의 성격을 완벽하게 띠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개음화나 원순모음화 등의 일부 음운현상들이 아직도 중세국어의 양상을 많이 띠고 있다.

특히 몇몇 어휘들은 아직도 중세국어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ㄱ곡용어나 ㅎ곡용어의 예를 아직 볼 수 있으며, ‘도로혀’ 같은 어휘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자주 나타나는 근대국어의 언어 현상들이 보인다. 예를 들면, 모음조화 붕괴현상은 매우 심각하여 근대국어의 양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모음조화의 통합양상이 음성모음 계열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다소 어수선한 표기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시 언중들의 실제 음성언어생활보다는 문자언어생활의 보수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한편 이 자료에 나타난 18세기 남해 방언(경상방언)의 자료는 별도로 방언사적 관점에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의 논의는 다음 기회에 미루기로 한다.

## 참고문헌

- 강신형(1980), 「계림유사 「고려방언」 연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고영근(1987), 「표준중세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김동소(2003), 「한국어변천사」, 형설출판사
- 김병제(1980), 「방언사전」,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평양
- 김완진(1965), 원사국어 모음론에 관계된 수삼의 문제, 「진단학보」 28집, 진단학회
- \_\_\_\_\_ (1968), 고구려어에 있어서의 i구개음화에 대하여, 「이승녕박사 송수기념논문집」,  
이승녕박사송수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
- 김주원(1992), 모음체계와 모음조화, 「국어학」 22호, 국어학회
- 김형규(1974), 「한국방언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남광우(1997), 「교학 고어사전」, 교학사
- 도호근(1991), 국어의 구개음화 연구, 원광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민(1986), 「전기 근대국어 음운론 연구」, 탑출판사
- 오종갑(1987), 국어의 원순모음화 현상, 「영남어문학」 14호, 영남대학교
- 이기문(2000), 「신정판 국어사개설」, 태학사
- 장영길(1994), 「15세기 국어 음운 체계 연구」, 흥문각
- \_\_\_\_\_ (1998), 비음화의 통시적 연구—경상방언을 중심으로—, 「어문학」 65호, 한국어문학회
- 최강현(1999), 「후송 유의양 유배기 남해문건록」, 신성출판사
- 최학근(1988), 「학국어 계통론에 관한 연구」, 명문당
- Juha Janhunen(1982), "Korean Vowel System in North Asian Perfective(Helsinki), 한글127호에 전재
- Ramstedt, G. J.(1928), "Remarks on the Korean Language", MSFOu 58
- \_\_\_\_\_ (1939), "A Korean Grammar", Helsinki
- \_\_\_\_\_ (1949), "Studies in Korean Etymology", MSFDU XCU, Helsinki

